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 비교 연구*

한 나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 18세 ~ 25세의 한국 대학생 385명과 캐나다 대학생 349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차원 척도분석을 통해 Schwartz 등(2012)의 개선된 기본 개별 가치 이론의 원형구조와의 유사성을 확인하였고, 이어서 집단 간 가치 우선순위를 비교하고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는 Schwartz 등(2012)의 개선된 기본 개별 가치 이론과 동일하게 세 가지 원리에 의해 하나의 원형구조로 분류되었다. 집단 비교에서 한국 대학생은 캐나다 대학생에 비해 자기중심적인 가치에 몰두하는 반면, 이타적인 동기를 추구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보수주의 상위범주 가치 비교에서, 한국 대학생의 가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속성이 함께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한국 대학생은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자율적 행동 추구 경향성이 더 강하면서, 동시에 상호의존적인 동조 가치 추구 경향성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대학생은 캐나다 대학생에 비해 새로움과 변화에 대한 자극추구 가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즐거움과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 형성에 미치는 역할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가치, 자기초월, 자기고양, 변화에 대한 개방성, 보수주의

* 이 논문은 제 1 저자의 박사학위논문(2019)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교신저자: 이승연,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Tel: 02)3277-2649, E-mail: slee1@ewha.ac.kr



© 2023,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은 경제성장 이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물질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이 일정 부분 증대되면 가치관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등장하는 경향을 보이나, 한국은 경제성장 이후에도 물질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례적인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세계 가치관 조사(wave 7)에서 높은 수준의 물질주의 가치를 보이는 한국 사람들의 비율은 45%로 높은 편이나,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보이는 한국 사람들의 비율은 4.1%에 머물렀다. 캐나다와 일본의 물질주의자 비율이 각각 15.3%, 21.6%인 점, 탈물질주의자 비율이 각각 23.8%, 9.8%인 점과 비교해볼 때(Haerpfer et al., 2022), 한국의 물질주의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탈물질주의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메타분석 연구에서 물질주의 가치가 개인의 안녕감(well-being)과 부적 관련성을 보인 점을 고려한다면(Dittmar et al., 2014), 이러한 가치에 대한 몰두는 행복이나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주관적 안녕감 점수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OECD, 2020b),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OECD, 2020a). 이러한 수치는 한국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조명해 봐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가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추상적인 목표, 열망, 혹은 바람(desire)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삶의 원칙을 안내하는 기준(standards)이 된다(Schwartz, 1992). 또한 가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으로 특정 태도와 행동을 이끄는 동기로 작용한다(Schwartz, 2010). 따라서 가치는 안녕감이나 삶의 질 같은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타인이나 외집단, 주변 환경을 향한 태도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가치는 차별 행동(Wetherell et al., 2013), 정치 이념과 평등 및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념(Hirsh et al., 2010; Jost et al., 2004), 외집단을 향한 태도(Schwartz, 2010)

등을 이끄는 핵심 기제가 된다.

지금까지 국외 선행연구들은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가치 추구의 보편성과 문화적 차이점을 밝히고자 노력해왔다(예, Hofstede et al., 2010; Schwartz et al., 2012). 그러나 국내 가치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인의 가치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 간 비교를 했어도 선택적으로 일부 가치에서의 차이를 살펴본다든지, 선행연구에서도 출된 결과와의 단순 비교를 통해 가치 차이를 살펴보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예를 들어,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의 가치를 비교한 구재선과 서은국(2015)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 보다 경제적 성공, 외모, 사회적 인정, 명성 등의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s)를 더욱 중시하고, 자기수용, 신체적 건강, 친화성, 공동체 감정 등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s)는 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 체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못했고, 내·외재적 가치에 포함되는 여덟 가지의 가치 항목을 단일문항으로만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최정원과 이영호(2014)의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PVQ-R) 한국판 타당화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이 다른 국가 대학생에 비해 ‘성취’, ‘권력’ 가치 같은 자기고양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Schwartz 등(2012)의 연구에서 얻어진 10개국(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 미국) 성인 및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 점수와 한국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 점수에 대한 단순 비교로, 가치 점수에서의 통계적 차이를 직접 검증하진 못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람들과 다른 국가 사람들과의 가치 우선순위를 하나의 연구에서 직접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치 비교준거로 캐나다를 선택하였다. 2021년에 조사한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은 9위(1조 9,883억), 한국의 GDP는 10위(1조 8,109

역)에 해당하여(World Bank, 2023), 두 나라는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56개국 대상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한국의 행복 지수는 54위, 캐나다는 살기 좋은 국가 상위 10위권에 속하여 국민 행복 수준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Helliwell et al., 2019). OECD(2020b)의 국가별 주관적 안녕감(0~10점) 비교에서도 캐나다의 점수는 8.1로 상위권에 속했다. 특히, 금융 불안정을 겪는 사람들의 비율은 캐나다(33%)가 한국(4%)에 비해 훨씬 높음에도, 낮은 삶의 만족도(4점 이하)를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은 한국(12%)이 캐나다(3%)보다 높았다. 자신이 필요할 때 의지할 친구나 가족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의 비율도 한국(19%)이 캐나다(7%)보다 더 높았다. 한국과 캐나다의 이러한 차이는 각 문화에서 사람들이 지향하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세계 가치관 조사(wave 7)의 세계문화지도(The Inglehart-Welzel World Cultural Map 2023)에 의하면, 캐나다는 자기표현 가치(self-expression values)가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에 속한다. 자기표현 가치가 강한 것은 환경 보호, 외국인, 성소수자, 남녀평등과 관련된 관용 수준이 높고, 경제 및 정치적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요구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한국은 자기표현 가치보다는 생존 가치(survival values)를 더욱 중시하는 국가에 속한다. 생존 가치는 경제와 신체적 안전을 강조하고, 자민족중심적이며, 신뢰나 관용(tolerance) 수준이 부족함을 의미한다(Haerpfer et al., 2022). 이러한 한국의 경향은 경제성장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경제적 성공이나 성공 같은 외적인 삶의 목표(extrinsic life goals)에 몰두하는 사회풍토를 반영해주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세계문화지도에서 한국은 일본, 홍콩과 더불어 세속합리성 가치(secular-rational values)가 가장 강한 국가에 속했다. 세속합리성 가치가 강한 것은 전통적 가치나 종교를 덜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이혼, 자살에 대한 수용도가 강하며,

국가적 자부심이나 애국심이 부족함을 뜻한다. 캐나다의 경우, 세계 가치관 조사 wave 6 (2010-2014)에서 세속합리성 가치 보다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에 속했으나(Inglehart et al., 2018), 최근 업데이트 된 wave 7 (2017-2022)에서 세속합리성 가치(secular-rational values)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음에도 여전히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였다(Haerpfer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만 18세부터 25세의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시기에 주목하였다(Arnett, 2000). 이 시기 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개방적인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과 교류하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 삶의 목표와 의미 등을 탐색해나간다. 또한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사고를 보이는 형식적 조작 사고를 보임과 동시에, 모순되는 사고나 감정 또는 경험을 통합하고 의미 추구가 가능하며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가 증가하는 후형식적 사고(post-formal thought)가 출현해 가치 판단에 최적화된 시기로 볼 수 있다(Mascolo & Fischer, 2010). 실제로 대학생은 초등·고등학생에 비해 추상적인 가치 차이를 인지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서지영, 정영숙, 2012). 그러나 이러한 인지발달에도 불구하고 여대생 중단연구에서 대학생활 동안 자신보다 타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초월적인 가치(예, 공동체, 소속감, 영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보다 자신이 얻는 이득이나 생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예, 돈, 쾌락주의, 안전)로의 몰두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박지은, 2018), 이러한 변화에는 경쟁적이고 외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주요한 역할을 제공했을 수 있다.

한국의 청년 취업난과 경쟁적인 사회적 분위기, 고물가와 주택 문제 등의 이유로 취업, 결혼이나 출산 등 여러 가치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긴 'N포 세대',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수저계급론’과 이번 생애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이생망’ 등의 신조어는 한국 청년들의 불안정한 현실적 상황과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무력감을 대변해주는 것일 수 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2016)의 7개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미국, 독일, 브라질) 대학생 가치관 비교에서도 한국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대학 만족도,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미래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 발전과 사회 연대감 강화에 관한 기대 역시 최하위권 이었다. 특히, 한국 대학생의 결혼 필요성 인식(47.5%)은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비혼(非婚)주의’가 보편적인 미국 대학생(28.7%)보다 높았지만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중국 대학생(73.5%)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도 한국 대학생은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가치 특성이 혼재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미국 대학생의 경우 결혼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비혼주의’ 양상을 보였다면, 한국 대학생의 경우는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되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비혼주의’에 대해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을 지연하거나 포기

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한국 대학생의 이러한 양상은 물질주의적이고 생존적인 가치로의 몰두를 반영해주는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한국 대학생이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었던 공동체 의식과 관련되는 사회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도외시하면서 개인적 성장이나 경제적 이득과 관련되는 자기중심적인 가치로의 몰두를 보일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비해 넓은 영토와 낮은 인구밀도, 풍부한 천연자원 등으로 경쟁적인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다양하고 상호존중적인 문화를 강조하는 서구문화권에서 자라온 캐나다의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를 직접 비교하는 본 연구 결과는 한국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에 담긴 함의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0개국 성인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론의 타당성이 확인된 Schwartz 등(2012)의 개선된 기본 개별 가치 이론(the refined theory of basic individual values)을 활용하여 보편적인 가치 구조를 분류하였다. Schwartz 등(2012)의 이론에서 가치는 다음의 세 원칙에 따라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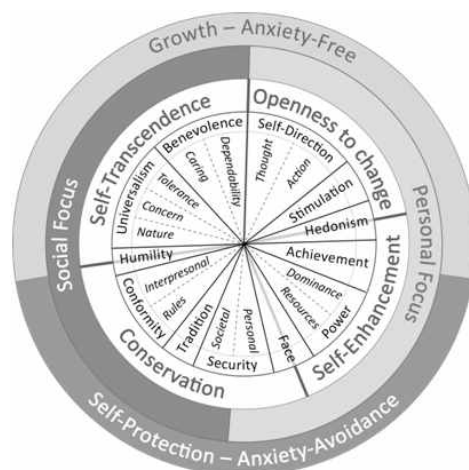


그림 1. 개선된 기본 개별 가치 이론: 가치 원형구조 (Schwartz, 2017)

속적인 원형 구조(circular motivational continuum)를 이룬다. 첫째, 여러 가치들 간 동기적 갈등이나 양립 가능성(compatibility)에 따라 가치의 원형 구조가 결정된다(Schwartz, 1992, 1994).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박애(benevolence) 가치는 서로 유사한 동기적 속성을 공유하여 가깝게 위치된다. 반면, 원의 반대편에 위치한 보편주의와 권력(power) 가치는 서로 양립되기 어려운 동기적 속성을 지닌다. 둘째, 가치들이 제공하는 이익이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지에 따라 '개인적 초점(personal focus)'과 '사회적 초점(social focus)'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동기적 속성이 불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위치가 결정된다. 즉, [그림 1]의 원 가장 윗부분인 '성장 기반-불안-자유(growth-anxiety-free)'는 자기 성장에 기여하고, 사람들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동기화되는 가치가 포함된다. 반면, 원 가장 아랫부분의 '자기 보호 기반-불안-회피(self-protection-anxiety-avoidance)'는 불안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동기화되는 가치가 포함된다(Schwartz et al., 2012).

이러한 원칙에 따라 19개의 보편적 가치는 네 종류의 상위범주(higher-order) 가치로 분류된다.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상위범주 가치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강조하는 '보편주의-자연, 보편주의-관심, 보편주의-관용, 박애-돌봄, 박애-신뢰성' 가치가 포함된다. 자기고양(self-enhancement) 상위범주 가치에는 자기 자신의 흥미를 추구하는 '성취, 권력-지배, 권력-자원' 가치가 포함된다. 또한 변화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change) 상위범주 가치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행동, 경험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상태를 강조하는 '자기 주도-사고, 자기 주도-행위, 자극추구, 쾌락주의' 가치가 포함된다. 보수주의(conservation) 상위범주 가치에는 자기 억제, 질서, 변화 회피를 강조하는 '안전-개인적, 안전-사회적, 전통, 동조-규칙, 동조-대인적' 가치가 포함된다(Schwartz et al., 2012; Schwartz, 2017). 각 세부가치에 대한 설명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chwartz 등(2012)의 기본 개별 가치 이론을 활용하여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동기와 목표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이들이 당면한 현실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특성이 가치 우선순위 형성에 미치는 역할을 논의하였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 및 설문은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no. 148-15). 연구참여자 모집은 한국과 캐나다 대학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게시판에 모집 공고를 게시한 후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으며, 만 18 ~ 25세에 해당하는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 각 4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예, 전체 설문지 20% 이상 누락 또는 역채점 문항에도 동일한 번호 응답만 반복)한 한국 대학생 15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캐나다 대학생 400명 자료에서도 51명(캐나다 국적이 아닌 22명, 불성실하게 응답한 29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 대학생 385명, 캐나다 대학생 349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한국 대학생의 남녀 성비는 남성 143명(37.1%), 여성 242명(62.9%)이고, 캐나다 대학생의 경우는 남성 145명(41.5%), 여성 204명(58.5%)이었다. 또한 한국 대학생($M_{연령}=21.66$ 세, $SD=1.99$)은 캐나다 대학생($M_{연령}=20.33$ 세, $SD=2.24$)보다 나이가 더 많고($t=8.44$, $p=.000$), 학년이 더 높았다($t=4.00$, $p=.000$). 한국 대학생은 캐나다 대학생 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더 낮

표 1. 개선된 기본 개별 가치 이론의 상위범주 가치, 기본 가치, 세부가치 (Schwartz, 2021)

상위 범주 가치 (4개)	기본 가치(10개)	세부 가치(19개)
자기 초월	박애(Benevolence): 개인적인 접촉이 강한 주변 사람들 (예, 가족, 친구)의 복지에 대한 보존과 증진	박애-신뢰성(Benevolence-Dependability): 신뢰롭고 믿을 수 있는 내집단(in-group) 구성원이 되는 것 박애-돌봄(Benevolence-Caring): 내집단 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헌신
	보편주의(Universalism): 자연과 모든 사람의 복지를 위한 올바른 인식, 관용, 보호	보편주의-관용(Universalism-Tolerance):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용과 이해 보편주의-관심(Universalism-Concern):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 정의, 보호 보편주의-자연(Universalism-Nature): 자연환경 보존
보수 주의	동조(Conformity): 사회적 기대나 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성향, 충동을 제한하는 것	겸손(Humility): 세상의 큰 도식 속에서 자신의 미미함 (insignificance)을 인식하는 것 동조-대인적(Conformity-Interpersonal): 다른 사람의 기본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함 동조-규칙(Conformity-Rules): 규칙, 공식적 의무, 법을 준수하는 것
	전통(Tradition): 전통문화나 종교가 제안하는 관습과 사상에 대한 존중, 헌신, 수용	전통(Tradition): 문화, 가족 또는 종교적 전통의 유지 및 보존
자기 고양	안전(Security): 사회/관계/자신에 대한 안전, 조화 (harmony), 안정	안전-사회적(Security-Societal): 더 넓은 사회의 안전과 안전 안전-개인적(Security-Personal): 자신과 직결된 환경에서의 안전
	권력(Power): 사람들과 자원에 대한 통제와 지배	체면(Face): 개인의 공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굴욕을 피하는 것 권력-자원(Power-Resources): 물질적, 사회적 자원의 통제를 위한 권력 권력-지배(Power-Dominance):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 행사를 위한 권력
변화에 대한 개방성	성취(Achievement):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개인적 성공	성취(Achievement): 정의 동일
	쾌락주의(Hedonism): 자신에 대한 즐거움과 감각적 만족	쾌락주의(Hedonism): 정의 동일
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극추구(Stimulation): 삶의 흥분, 새로움, 도전	자극추구(Stimulation): 정의 동일
	자기주도(Self-Direction): 독립적인 생각과 행동, 선택, 창조, 탐구	자기주도-행위(Self-Direction-Action): 자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자유 자기주도-사고(Self-Direction-Thought):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키울 수 있는(to cultivate) 자유

주. 겸손, 체면, 쾌락주의는 상위범주 가치들 사이에 위치함.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한국 대학생 (n=385)			캐나다 대학생 (n=349)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성별	남	143 (37.1%)	성별	남	145 (41.5%)
	여	242 (62.9%)		여	204 (58.5%)
동거가족 (복수응답)	부	280 (72.7%)	동거가족 (복수응답)	부	197 (56.4%)
	모	303 (78.7%)		모	220 (63.0%)
	형제/자매	260 (67.5%)		형제/자매	144 (41.3%)
	조부/조모	22 (5.7%)		조부/조모	18 (5.1%)
	무응답	46 (11.9%)		무응답	24 (6.9%)
부/모 비동거 이유 (n=118)	부모 직장 때문	16 (13.6%)	부/모 비동거 이유 (n=177)	부모 직장 때문	17 (8.7%)
	학교 때문	59 (50.0%)		학교 때문	111 (64.5%)
	부모 별거	5 (4.2%)		부모 별거	9 (5.2%)
	부모 이혼	21 (17.8%)		부모 이혼	24 (14.0%)
	사별	10 (8.5%)		사별	13 (7.6%)
	기타	7 (5.9%)		기타	0 (0%)
사회 경제수준	최상	6 (1.6%)	사회 경제수준	최상	9 (2.6%)
	상	52 (13.5%)		상	44 (12.6%)
	중상	119 (30.9%)		중상	135 (38.7%)
	중	120 (31.2%)		중	106 (29.9%)
	중하	62 (16.1%)		중하	35 (10.0%)
	하	22 (5.7%)		하	14 (4.0%)
	최하	2 (0.5%)		최하	4 (1.1%)
무응답	2 (0.5%)	무응답	2 (0.6%)		

게 보고하였다($t=-1.95, p=.041$). 이러한 차이에도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분포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난 점은 두 표본을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없음을 보여준다.

측정도구

가치

본 연구에서는 가치의 측정을 위해 Schwartz (2017)의 개정된 가치묘사 질문지(Portrait Values

Questionnaire-Revised-Revised, PVQ-RR)를 사용하였다. 이는 Schwartz 등이 2012년에 개정한 PVQ-Revised(PVR-R) 57문항 중 문항 간 상관이 높았던 일부 문항을 원저자인 Schwartz가 다시 수정한 척도이다. PVQ-RR은 32개의 언어 버전을 갖추고 있는데, Schwartz와 Ciecuch(2022)는 한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49개의 문화권에서 PVQ-RR이 타당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분석을 통해 보여준 바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PVQ-R(최정원, 이영호,

표 3. 개정된 가치묘사 질문지 문항과 신뢰도

상위범주	가치 하위요인	문항	Cronbach's α	
			한국($n=385$)	캐나다($n=349$)
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기주도(사고, 행위)	1, 16, 23, 30, 39, 56	.78	.79
	자기주도-사고	1, 23, 39	.59	.72
	자기주도-행위	16, 30, 56	.75	.58
	자극추구	10, 28, 43	.78	.70
	쾌락주의	3, 36, 46	.66	.71
보수주의	안전(개인적, 사회적)	2, 13, 26, 35, 50, 53	.75	.76
	안전-개인적	13, 26, 53	.63	.55
	안전-사회적	2, 35, 50	.80	.76
	전통	18, 33, 40	.77	.82
	동조(규칙, 대인적)	4, 15, 22, 31, 42, 51	.77	.78
	동조-규칙	15, 31, 42	.78	.81
	동조-대인적	4, 22, 51	.80	.76
자기초월	보편주의(자연, 관심, 관용)	5, 8, 14, 21, 34, 37, 45, 52, 57	.82	.86
	보편주의-자연	8, 21, 45	.86	.85
	보편주의-관심	5, 37, 52	.76	.79
	보편주의-관용	14, 34, 57	.70	.73
	박애(돌봄, 신뢰성)	11, 19, 25, 27, 47, 55	.78	.80
	박애-돌봄	11, 25, 47	.70	.75
	박애-신뢰성	19, 27, 55	.62	.61
자기고양	성취	17, 32, 48	.59	.59
	권력(지배, 자원)	6, 12, 20, 29, 41, 44	.76	.81
	권력-지배	6, 29, 41	.75	.75
	권력-자원	12, 20, 44	.65	.74
기타 ¹⁾	체면	9, 24, 49	.65	.71
	겸손	7, 38, 54	.53	.52

2014), PVQ-RR(박용한 등, 2019)의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Schwartz의 가치 이론을 한국 대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1) Schwartz(2017)의 개선된 가치 이론의 코딩 및 분석지침에서는 새로 추가된 '겸손, 체면' 가치의 연구가 충분

하지 않아, 구조적 분석(structural analysis)에서 보수주의 상위범주에 속한다면 이를 고차요인(higher-order)에 포함하고 그렇지 않다면 고차요인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본 연구의 구조적 분석에서는 '겸손', '체면' 가치를 보수주의 상위범주에 포함하는 것보다 포함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게 나타나 개별 가치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VQ-RR 영문판과 한국판 버전을 Schwartz로부터 획득하여 캐나다와 한국 대학생에게 사용했는데, 한국판 PVQ-RR은 최정원과 이영호(2014)가 타당화 한 한국판 개정된 가치묘사 질문지(PVQ-R) 문항 중 PVQ-RR에서 새로 수정된 문항만 최정원이 추가 번역한 버전이다. 본 연구에서 원 검사와 번역된 검사의 문항들이 개념적으로 동등한 내용을 측정하는지, 번역된 검사에서 개념이나 문항이 한국의 문화적 환경에 적절한지 등을 확인했을 때 문항 내용 동등성(content equivalence)이 적절하였다.

PVQ-RR은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를 묘사하는 문항을 보고 자신이 각 문항의 사람들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Likert 6점 척도(1: *나의 전혀 같지 않다* ~ 6: *나의 매우 같다*)에 평정케 한다. 이는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남성용'과 '여성용' 두 버전으로 구분된다(예, "독립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 PVR-RR은 19개 가치를 각 3문항씩 총 57 문항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Schwartz(2017)의 코딩법대로 개별 가치 점수에서 57개 가치의 평균점수(MRAT)를 빼고 4를 더한 평균중심화(centering) 점수를 사용하였다(예, 자기주도-사고(SDT)의 평균중심화 방식: $SDT_{centering} = mean(sdt1, sdt2, sdt3) - MRAT + 4$). PVQ-RR은 평균중심화 된 개별 가치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가치에 비해 해당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높음을 의미한다. PVQ-RR을 직접 번안한 박용환 등(2019)의 연구에서 한국판 PVQ-RR의 개별 가치의 내적합치도 범위는 .40 ~ .85이었다. 본 연구에서 PVQ-RR의 개별 가치의 내적합치도 범위는 한국 대학생 .53 ~ .86, 캐나다 대학생 .52 ~ .86이었다(표 3).

자료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구조가 Schwartz 등

(2012)의 개선된 기본 개별 가치 이론의 원형구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차원 척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Schwartz 이론에서 가치 구조 배열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별 가치의 상호관련성을 상대적 거리로 표현해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를 살펴본 후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원형구조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가 Schwartz 등(2012)의 개선된 기본 개별 가치 이론과 같이 원형구조를 이루는지 확인하고자, 여러 항목 간에 내재된 구조를 밝히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차원 척도분석에 의한 한국 대학생의 가치 구조는 [그림 2]에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구조는 [그림 3]에 각각 제시하였다.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는 Schwartz 등(2012)의 개선된 기본 개별 가치 이론과 같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 하나의 원형구조를 이뤄 이론적 상위 가치 구조의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먼저, 가치 간 양립 가능성과 갈등에 따라 4개의 상위범주 가치(자기초월, 자기고양, 변화에 대한 개방성, 보수주의)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가치가 제공하는 이익과 흥미에 따라 '개인적 초점, 사회적 초점'으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치와 불안 간 관계성에 따라 '성장 기반-불안-자유(growth-anxiety-free), '자기 보호 기반-불안-회피(self-protection-anxiety-avoidance)'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몇몇 개별 가치는 10개국 성인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론적 타당성이 확인된 Schwartz 등(2012)의 이론적 배열과 차이를 보였다. 먼저, [그림 1]의 Schwartz 등(2012)의 가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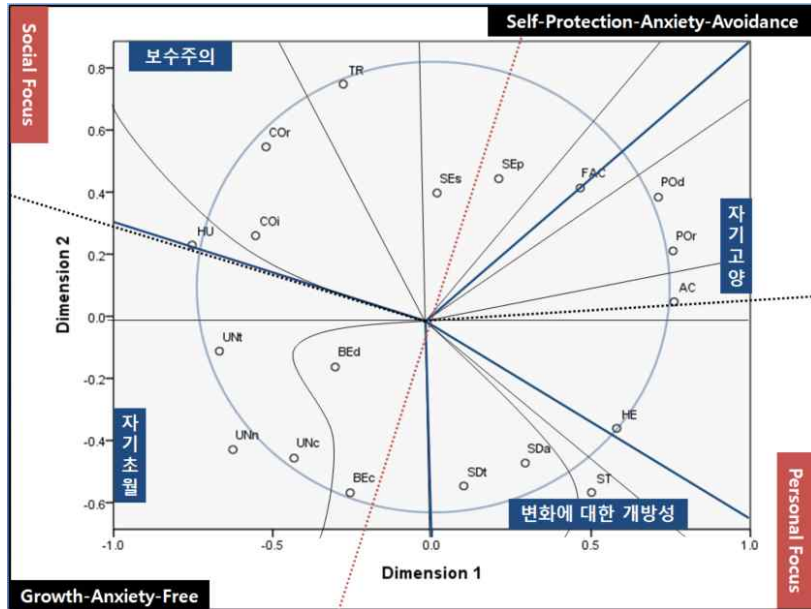


그림 2. 다차원 척도 분석: 한국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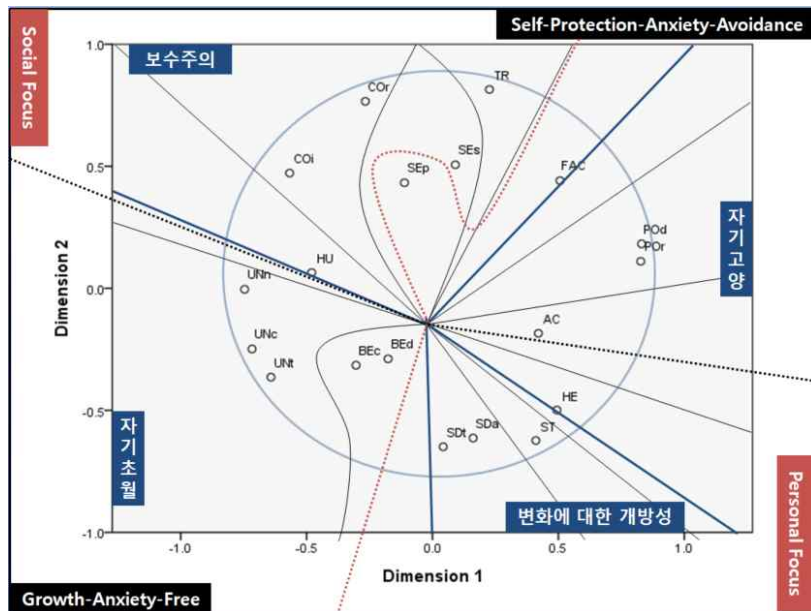


그림 3. 다차원 척도 분석 : 캐나다 대학생

주. 1) SDt: 자기주도-사고, SDa: 자기주도-행위, ST: 자극추구, HE: 쾌락주의, AC: 성취, POd: 권력-지배, POOr: 권력-자연, FAC: 체면, SEp: 안전-개인적, SEs: 안전-사회적, TR: 전통, COr: 동조-규칙, COi: 동조-대인적, HU: 겸손, UNn: 보편주의-자연, UNc: 보편주의-관심, UNt: 보편주의-관용, BEc: 박애-돌봄, BEd: 박애-신뢰성, 2) Schwartz의 기본 가치 이론에 근거하여 원형과 구분선 표시

형구조와 비교했을 때,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 모두 권력 가치에 해당하는 '권력-지배(POd)'와 '권력-자원(POr)'의 가치 배열이 서로 뒤바뀌었다. Schwartz 등(2012)의 가치 이론에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길 원하는 '권력-지배(POd)' 가치는 사회적 성공을 중시하는 '성취(AC)' 가치와 동기적 유사성이 높아 가장 인접해 있다. 또한 물질적 풍요를 중시하는 '권력-자원(POr)' 가치는 공적인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FAC)' 가치와 가장 인접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 자료에서는 오히려 '권력-지배(POd)' 가치는 '체면(FAC)' 가치와 거리가 인접해 있고, '권력-자원(POr)' 가치는 '성취(AC)' 가치와 거리가 더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PVQ-R을 타당화한 최정원과 이영호(201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대학생의 '보편주의-자연(UNn)', '보편주의-관심(UNc)', '보편주의-관용(UNt)'의 가치 배열이 Schwartz 등(2012)의 이론과 차이를 보였다. [그림 1]의 Schwartz 등(2012) 가치 이론에서는 외집단에 대한 수용을 중시하는 '보편주의-관용(UNt)' 가치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예, 가족/친구)의 복지에 헌신하는 '박애-돌봄(BEc)' 가치와 동기적 유사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의 경우에서만, '보편주의-관용(UNt)' 가치가 '박애-돌봄(BEc)' 가치와 가장 멀리 위치해 동기적 유사성이 낮았다. 오히려, 평등/공정성에 대한 '보편주의-관심(UNc)' 가치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헌신인 '박애-돌봄(BEc)' 가치와 가장 인접하여 동기적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대학생의 '박애(BEc, BEd)' 세부 가치의 배열에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Schwartz 등(2012)의 이론에서는 가족/친구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중시하는 '박애-신뢰성(BEd)' 가치가 '자기주도(SDc, SDa)' 가치와 인접해 있으나, 한국 대학생의 '박애-신뢰성(BEd)' 가치는 '자기주도(SDc, SDa)' 가치에 비해 '보편주의(UNn, UNc, UNt)' 가치들과 더욱 인접하였다.

또한 캐나다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한국 대학생의 '박애(BEc, BEd)' 세부 가치 간 거리가 더욱 멀어 동기적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지막으로, Schwartz 등(2012)의 가치 이론과 한국 대학생의 경우에는 문화, 가정, 종교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TR)' 가치가 규칙이나 규범에 대한 순응을 강조하는 '동조-규칙(COr)' 가치와 인접하나, 캐나다 대학생의 '전통(TR)' 가치는 공적 이미지 유지를 중시하는 '체면(FAC)' 가치와 동기적 유사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캐나다 대학생의 '겸손(HU)' 가치는 '보편주의 가치 군집(UNn, UNc, UNt)'에 더욱 가까이 위치하였다.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순위 비교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나열한 후, Schwartz 등(2012)의 10개국 대학생 자료와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 중 상위 5순위에 포함되는 가치는 '자기주도-행위', '쾌락주의', '안전-개인적', '체면', '박애-돌봄' 순이었다.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 중 상위 5순위에 포함되는 가치는 '박애-돌봄', '자기주도-사고', '박애-신뢰성', '자기주도-행위', '성취' 순이었다. Schwartz 등(2012)의 서양 문화권에 해당하는 10개국 성인 및 대학생 결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 상위 5순위에는 '박애(돌봄, 신뢰성)', '자기주도(사고, 행위)' 가치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Schwartz 등(2012)의 가치 이론에서 개인의 성장을 이끌고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때(growth-anxiety-free) 동기화되는 가치들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의 경우, '자기주도(사고, 행위)' 중 '자기주도-행위' 가치만, '박애(돌봄, 신뢰성)' 중 '박애-돌봄'만 가치 우선순위 상위 5순위에 포함되었다. 또한 캐나다 대학생과 Schwartz 등(2012)의 10개국 대학생 결과는 달리, 한국 대학생의 '안전-개인적',

표 4.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순위 비교

	한국 대학생 (n=385)		캐나다 대학생 (n=349)		Schwartz 등(2012) 10개국 자료 (n=3,261)	
	가치	M(SD)	가치	M(SD)	가치	M(SD)
1	자기주도-행위	4.66(.63)	박애-돌봄	4.48(.69)	박애-돌봄	5.41(.60)
2	쾌락주의	4.58(.64)	자기주도-사고	4.47(.67)	박애-신뢰성	5.10(.72)
3	안전-개인적	4.43(.66)	박애-신뢰성	4.44(.62)	쾌락주의	5.08(.80)
4	체면	4.34(.67)	자기주도-행위	4.41(.61)	자기주도-행위	4.96(.71)
5	박애-돌봄	4.34(.68)	성취	4.34(.65)	자기주도-사고	4.77(.71)
6	자기주도-사고	4.33(.61)	쾌락주의	4.32(.73)	보편주의-관심	4.72(.83)
7	보편주의-관심	4.28(.74)	안전-개인적	4.32(.63)	안전-개인적	4.64(.83)
8	성취	4.25(.71)	보편주의-관용	4.30(.73)	보편주의-관용	4.61(.83)
9	박애-신뢰성	4.19(.65)	보편주의-관심	4.26(.83)	안전-사회적	4.32(.81)
10	안전-사회적	4.08(.79)	자극추구	4.07(.78)	동조-대인적	4.30(.85)
11	동조-대인적	4.06(.80)	안전-사회적	4.06(.77)	자극추구	4.29(.90)
12	보편주의-관용	4.04(.68)	겸손	3.94(.76)	체면	4.24(.90)
13	권력-자원	3.88(.89)	체면	3.89(.80)	성취	4.08(.91)
14	자극추구	3.63(.92)	동조-대인적	3.85(.92)	겸손	4.07(.95)
15	동조-규칙	3.62(.91)	보편주의-자연	3.84(.98)	보편주의-자연	4.02(1.03)
16	권력-지배	3.61(.91)	동조-규칙	3.61(.98)	동조-규칙	3.75(1.08)
17	보편주의-자연	3.60(.90)	권력-자원	3.27(1.08)	전통	3.67(1.12)
18	겸손	3.43(.75)	권력-지배	3.11(1.07)	권력-지배	3.12(1.09)
19	전통	2.64(1.03)	전통	3.03(1.22)	권력-자원	3.05(1.22)

주. 한국 대학생 볼드표시: 한국 > 캐나다, 캐나다 대학생 볼드표시: 한국 < 캐나다 (표 5 참고)

‘체면’ 가치가 상위 5순위에 포함되었다. 또한 캐나다 대학생과 Schwartz 등(2012)의 10개국 대학생 결과에서 우선순위가 낮았던 가치에는 ‘보편주의(자연)’, ‘동조-규칙’, ‘권력(지배, 자원)’, ‘전통’이 포함되었다. 한국 대학생이 덜 중시하는 가치에 ‘겸손’ 가치가 포함된 점을 제외하고 이와 유사하였다.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 차이 검증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차이 검증 결

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변화에 대한 개방성 대 보수주의’, ‘자기초월 대 자기고양’의 상반된 동기적 속성을 보이는 상위범주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변화에 대한 개방성 상위범주 가치에서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_{개방성} = -1.04, ns$). 그러나 세부적으로 구분했을 때, 한국 대학생은 캐나다 대학생보다 즐거움과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가치 점수가 더 높았고($t_{쾌락주의} = 5.15, p < .001, d = .38$), 변화와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것을 중시하는 ‘자극

표 5.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차이검증²⁾

하위요인	<i>M (SD)</i>		<i>t</i>	<i>p</i>	Cohen's <i>d</i>
	한국 (<i>n</i> =385)	캐나다 (<i>n</i> =349)			
변화에 대한 개방성 상위범주 가치	4.23(.47)	4.27(.50)	-1.04	.671	.08
자기주도(사고, 행위)	4.49(.52)	4.44(.56)	1.43	.154	.09
자기주도-사고	4.33(.61)	4.47(.67)	-2.88***	.004	.22
자기주도-행위	4.66(.63)	4.41(.61)	5.41***	.000	.40
자극추구	3.63(.92)	4.07(.78)	-6.86***	.000	.52
쾌락주의	4.58(.64)	4.32(.73)	5.15***	.000	.38
보수주의 상위범주 가치	3.57(.44)	3.64(.53)	-1.90	.837	.14
안전(개인적, 사회적)	4.25(.53)	4.18(.53)	1.74	.082	.13
안전-개인적	4.43(.66)	4.32(.63)	2.43*	.015	.17
안전-사회적	4.08(.79)	4.06(.77)	.35	.724	.03
전통	2.64(1.03)	3.03(1.22)	-4.60***	.000	.35
동조(규칙, 대인적)	3.84(.64)	3.73(.73)	2.12*	.034	.16
동조-규칙	3.62(.91)	3.61(.98)	.08	.940	.01
동조-대인적	4.06(.80)	3.85(.92)	3.29**	.001	.24
자기초월 상위범주 가치	4.11(.38)	4.29(.40)	-6.07***	.000	.46
보편주의(자연, 관심, 관용)	3.97(.48)	4.14(.62)	-3.90***	.000	.31
보편주의-자연	3.60(.90)	3.84(.98)	-3.47***	.001	.26
보편주의-관심	4.28(.74)	4.26(.83)	.33	.741	.03
보편주의-관용	4.04(.68)	4.30(.73)	-5.03***	.000	.37
박애(돌봄, 신뢰성)	4.26(.55)	4.46(.55)	-4.75***	.000	.36
박애-돌봄	4.34(.68)	4.48(.69)	-2.81**	.005	.20
박애-신뢰성	4.19(.65)	4.44(.62)	-5.18***	.000	.39
자기고양 상위범주 가치	3.99(.61)	3.76(.61)	5.10***	.000	.38
성취	4.25(.71)	4.34(.65)	-1.77	.077	.13
권력(지배, 자원)	3.75(.73)	3.19(.92)	8.96***	.000	.67
권력-지배	3.61(.91)	3.11(1.07)	6.85***	.000	.50
권력-자원	3.88(.89)	3.27(1.08)	8.26***	.000	.62
체면	4.34(.67)	3.89(.80)	8.32***	.000	.61
겸손	3.43(.75)	3.94(.76)	-9.24***	.000	.68

주. 평균중심화된 가치 점수, **p*<.05, ***p*<.01, ****p*<.001

추구' 가치 점수는 더 낮았다($t_{자극추구}=-6.86, p<.001, d=.52$). 한편, 한국 대학생은 캐나다 대학생보다 행동적 자율성에 해당하는 '자기주도-행위' 가치 점수는 더 높고($t_{자기주도-행위}=5.41, p<.001, d=.40$), 사고의 자율성에 해당하는 '자기주도-사고' 가치 점수는 더 낮았다($t_{자기주도-사고}=-2.88, p<.05, d=.22$).

보수주의 상위범주 가치 역시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_{보수주의}=-1.90, ns$). 그러나 세부적으로, 한국 대학생은 캐나다 대학생보다 문화와 종교, 가족의 전통 유지 및 보존을 중시하는 '전통' 가치 점수가 더 낮았다($t_{전통}=-4.60, p<.001, d=.35$). 한국 대학생이 캐나다 대학생보다 다른 사람에게 동조하는 '동조-대인적' 가치 점수는 더 높았지만($t_{동조-대인적}=3.29, p<.01, d=.24$), 규칙이나 규범, 형식적 의무에 순응하는 '동조-규칙' 가치의 차이는 없었다($t_{동조-규칙}=.08, ns$). 또한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사회적 가치에서는 두 집단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t_{안전-사회적}=.35, ns$), 개인적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개인적' 가치는 한국 대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다($t_{안전-개인적}=2.43, p<.05, d=.17$).

자기초월 상위범주 가치의 경우, 한국 대학생이 캐나다 대학생보다 더 낮았다($t_{자기초월}=-6.07, p<.001, d=.46$). 이는 '보편주의(자연, 관심, 관용)'와 '박애(돌봄, 신뢰성)'로 구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t_{보편주의}=-3.90, p<.001, d=.31$; $t_{박애}=-4.75, p<.001, d=.36$). 박애 가치를 '박애-돌봄', '박애-신뢰성'으로 더 세분하여 구분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t_{박애-돌봄}=-2.81, p<.01, d=.20$; $t_{박애-신뢰성}=-5.18, p<.001, d=.39$). 한편, 보편주의 가치를 더 세분화했을 때 평등성과 정의를 중시하는 '보편주의-관심' 가치에서는 집단 차이가 없었고($t_{보편주의-관심}=.33, ns$), 자연환경 보존을 중시하는 '보편주의-자연'과 외집단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중시하는 '보편주의-관용' 가치는 한국 대학생이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t_{보편주의-자연}=-3.47, p<.001, d=.26$; $t_{보편주의-관용}=-5.03, p<.001, d=.37$).

한편, 한국 대학생은 캐나다 대학생보다 자기고양 상위범주의 가치를 더 높게 보고하였다($t_{자기고양}=5.10, p<.001, d=.38$). 그러나 이를 개별 가치로 구분했을 때 사회적 성공을 중시하는 '성취' 가치 점수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t_{성취}=-1.77, ns$), 다만, 한국 대학생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길 원하는 '권력-지배'와 물질적 풍요를 중시하는 '권력-자원' 모두에서 점수가 더 높았으며($t_{권력-지배}=6.85, p<.001, d=.50$; $t_{권력-자원}=8.26, p<.001, d=.62$), 효과 크기 역시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학생은 캐나다 대학생보다 공적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 가치 점수가 더욱 높았고, '겸손' 가치 점수는 더욱 낮았다($t_{체면}=8.32, p<.001, d=.61$; $t_{겸손}=-9.24, p<.001, d=.68$).

본 연구에서 발견한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 간 가치의 주목할 만한 차이를 종합해보면 (Cohen's $d \geq .50$), 한국 대학생이 캐나다 대학생에 비해 흥분, 새로움, 변화를 즐기는 '자극추구' 가치 점수가 더욱 낮고, 한국 대학생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권력-지배'와 물질적, 사회적 자원을 통제하려는 '권력-자원' 가치 점수가 더욱 높은 점이였다. 또한 한국 대학생이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중시하는 '체면' 가치 추구 경향이 더욱 높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손' 가치 추구 경향은 훨씬 더 낮은 점이였다.

논 의

가치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 우선순위는 특정 태도나 행동을 이끌고,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Schwartz, 2010,

2)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는 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했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7).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과 캐나다 대학생이 어떠한 가치에 몰두하고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동기와 목표를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국내외 집단의 가치를 직접 비교하지 않거나, 일부 가치만 선별하여 비교했던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가치 이론인 Schwartz 등(2012)의 개선된 기본 개별 가치 이론을 활용해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 집단 간 가치 체계 차이를 직접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가치 비교 결과는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삶의 동기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은 캐나다 대학생에 비해 자기중심적(egoistic)인 가치에 몰두하나, 이타적인 동기를 중시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대학생은 자신보다 타인이나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초월' 상위범주 가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자신의 이득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초점적인 속성의 '자기고양' 상위범주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한국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 1~4순위는 '자기주도-행위, 쾌락주의, 안전-개인적, 체면' 순인데, 이는 Schwartz 가치 이론에서 개인적 초점(personal focus)에 해당하는 가치로, 캐나다 대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가치였다. 한국 대학생이 '자기주도-행위, 쾌락주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한 본 연구 결과는 최정원과 이영호(2014), 박용한 등(2019)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가 '쾌락주의, 자기주도-행위' 순으로 가장 높았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와 달리,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 1~4순위는 '박애-돌봄, 자기주도-사고, 박애-신뢰성, 자기주도-행위' 순으로, 이러한 가치는 모두 사람들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동기화되고 자기성장을 이끄는 가치였다. 이러한 캐나다 대학생의 결과는 서양 문화권 10개국의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Schwartz 등(2012)의 연구에서 '박애(돌봄, 신뢰

성), '자기주도(사고, 행위)' 가치가 모두 5순위 안에 포함된 점과도 유사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오랜 민주주의 전통, 평등과 공정함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 사회적 안전망이나 복지체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어 개인의 이득이나 생존 보다는 자기성장을 이끄는 가치로 초점을 돌리기 쉽지만,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에 배분할 수 있는 자원이거나 일자리가 한정적이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물질주의가 중시되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가치에 더욱 몰두하기 쉽다.

구체적으로 자기초점적인 속성의 '자기고양' 상위범주 가치에서, 한국 대학생은 캐나다 대학생보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물질적 자원을 소유하길 원하는 '권력' 가치를 더욱 중시하였다. Schwartz 등(2012)의 가치 이론에서 권력 욕구는 불안을 자극하는 위협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어떤 일을 통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권력' 가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과 권력을 얻는 것(권력-지배), 물질적·사회적 자원을 소유하고 부유해지길 원하는 것(권력-자원), 그리고 공적 이미지와 명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길 원하는 것(체면)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Schwartz 등, 2012), 본 연구에서 권력 추구 경향성(권력-지배, 권력-자원, 체면)의 모든 요소가 한국 대학생에게 더 높았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Cohen's $d \geq .50$). 특히, 다차원적 척도분석에서 한국 대학생의 '권력'(특히, '권력-자원') 가치와 사회적 인정 추구, 성공이나 수행에 몰두하는 '성취' 가치 간 거리가 더욱 밀접하게 나타나 사회적 성공이나 인정을 추구하는 것과 물질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 간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타인초점적인 속성을 지닌 '자기초월' 상위범주 가치에서, 한국 대학생은 캐나다 대학생보다 친구, 가족 등 자신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고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동기('박애-돌봄')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신

되하는 것의 중요성('박애-신뢰성')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길 원하는 동기('보편주의-관심')는 두 집단이 다르지 않았지만, 외집단에게 관대하며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동기('보편주의-관용')와 자연보호를 중시하는 동기('보편주의-자연')는 한국 대학생이 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한국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외집단을 이해하거나 관용을 베푸는 삶에 관심을 덜 기울이는 면을 반영해주는 결과일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용(tolerance)이 부족하고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세계 가치관 조사 결과(Inglehart et al., 2018)와도 일치한다.

더욱이 다차원 척도분석에서 한국 대학생의 경우에만 자신과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 대한 헌신('박애-돌봄')과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외집단에 대한 수용과 이해('보편주의-관용')의 동기적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이러한 '박애-돌봄' 가치가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중요시하는 '보편주의-관심' 가치와 동기적 유사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한국 대학생의 내집단 편향(ingroup bias) 즉,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 선호가 더 강한 문화적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과 백인 미국인(Caucasian American)의 fMRI 비교연구에서, 한국인은 균등하게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님에도 사회적 위계를 더 선호하고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집단 구성원의 고통에 더 공감하는 내집단 편향을 보인 점(Cheon et al., 2011), 한국 대학생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 학생(백인, 흑인, 아시아인)보다 내집단 선호가 더욱 강했던 점(노경란, 방희정, 2008)과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보수주의' 상위범주 가치에서 한국 대학생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한국 대학생의 가치는 비교문화심리학에서 설명하는 동서양 문화의 이분법적 특성에 의

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인의 가치가 전통적인 집단주의 가치와 개인주의 가치의 이중적 체계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예, 정태연, 송관재, 2006; 한규석, 신수진, 1999)과도 일치한다. 전통주의 가치와 개인주의 가치가 혼재된 이중적인 가치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매우 빠르게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서구 교육제도의 도입과 확산,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물질주의 가치관 확산 등의 개인주의 문화가 빠르게 유입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에서 중년 세대 보다 20대 청년의 가치관 변화가 더욱 급속했던 점을 고려해보는다면(나은영, 차유리, 2010), 대학생이 개인주의 문화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Schwartz 등(2012)의 가치 이론에서 '자기주도 대 동조' 가치는 양극단에 위치하며, 이러한 동기들은 자율성과 권위에 대한 저항이라는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양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동양 문화권의 특성을 보이면서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을 함께 받아 온 한국 청년은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가치 추구에 해당하는 '자기주도-행위' 가치뿐 아니라 동양 문화권의 상호의존적인 가치 추구와 관련되는 '동조' 가치 점수가 모두 높았다. 자율성이 개인의 목표와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성이라면(Chirkov et al., 2003), 동조는 다른 사람이나 규칙에 따라 순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비교문화연구에서는 자율성 발달과 자기(self) 개념 형성에 대한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구분하면서,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율성을 더욱 중요시하며(Kağıçibaşı, 2007),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동조하는 경향이 강함을 설명한다(Bond & Smith, 1996). 이러한 차이는 서양 문화권에서 독립적인 자기(independent self) 개념을 지니고 있어 자신을 타인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interdependent self) 개념을 지니고 있어

자신을 타인과 상호연결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Markus, Kitayama, 1991).

그러나 이러한 동서양의 명확한 구분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은 서양 문화권의 캐나다 대학생보다도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행동과 개인적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하면서도 동시에 주변 사람의 압력에 쉽게 동조하면서 타인의 평가를 중시하는 관계적 상호의존성도 모두 강하였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에 대한 동기 추구(‘자기주도-사고’)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Schwartz 등(2012)의 이론에서 행동의 자율성은 자신이 선택한 목표에 도달하여 역량을 발휘하는 것과 관련되며, 사고의 자율성은 개인의 지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은 서구문화권의 캐나다 대학생보다도 개인적 역량을 기르고 자기 개발하며 스스로 행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동기 추구가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자신만의 독립적인 관점을 형성하거나 의견을 개발하며 사물의 이치를 스스로 알아가고자 하는 동기 추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더욱이 ‘보수주의’ 상위범주 가치에 해당하는 동조 가치를 세분화했을 때, 규칙이나 규범, 형식적 의무에 대한 순응을 의미하는 ‘동조-규칙’ 가치에서의 차이는 없었으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동기화되는 대인적인 동조 경향성만 한국 대학생이 더 강했는데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바르고 순종적이며 공손한 동양 문화권의 속성과도 관련될 수 있다. Güngör 등(2014)의 비교문화연구에서 일본 대학생은 터키 대학생보다 동조 경향성을 더욱 높게 보고했는데 일본 대학생의 동조만 관계적 안녕감을 정적으로 예측한 점을 고려해보면, 후속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의 대인적 동조 역시 관계에서 순기능적인 결과를 도출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변화에 대한 개방성’ 상위범주 가치 중

즐거움이나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는 한국 대학생이 캐나다 대학생보다 더욱 높은 점수를 보인 가치 중 하나였다. 이는 세계 가치관 조사(wave 7)에서 한국 사람들이 현실적인 생존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인 점(Hacrpfer et al., 2022)과도 일치한다. 한국의 압축적인 근대화 및 급속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변화, 그로 인한 불확실성과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현실적 생존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고용 불확실성과 청년 실업 등 불확실성이 높은 현실에서 한국 대학생은 고통을 회피하면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만족을 얻는 쾌락주의 안녕감에 몰두해 정작 가치 있는 삶이나 바람직한 삶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 충분치 못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을 최대한 즐기려는 ‘YOLO(You Only Live Once)’나 미래의 불확실한 성취보다 현실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원하는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회적 풍토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 먼 미래보다는 현재의 즐거움이나 쾌락에 몰두하거나, 사회 및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취업이나 결혼, 출산 등 여러 가치를 포기하는 ‘N포 세대’ 등의 신조어가 기성세대에게 마치 현실 도피성 개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의 어쩔 수 없는 합리적 선택일 수도 있다.

또한 한국 대학생의 ‘변화에 대한 개방성’ 상위범주 가치 중 새로움이나 변화를 추구하는 ‘자극추구’ 가치 점수가 낮았던 본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Cohen’s $d \geq .50$). 즉, 한국 대학생은 캐나다 대학생에 비해 새로운 경험이나 일을 시도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불안과 위험에 대항하며 자신을 보호하고자 동기화되는 ‘보수주의’ 상위범주 가치 중, 개인적 안전을 중시하고 위험을 피하려는 동기가 강했던 점과도 연결될 수 있다. 즉, 한국 대학생은 본인과 직결된 환경의 안전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위협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낮

선 경험이나 새로운 추구에 대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불확실성 회피가 강한 문화이고, 한국 대학생의 외집단에 대한 지각된 위협 수준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김희재, 김현숙, 2012), 개인과 직결된 환경에서의 위협 회피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낮은 동기가 이(異) 문화에 대한 거부나 외집단에 대한 위협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발견한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 간 가치의 주목할 만한 차이 중 하나는 한국 대학생이 공격 이미지와 명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길 원하는 '체면' 가치 추구 경향성이 높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손' 가치 추구 경향성이 낮았던 점이다(Cohen's $d \geq .50$). Schwartz 등(2012)의 가치 이론에서 체면 가치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모욕을 피하는 안정감과 힘을 의미하는데(Schwartz, 2017), PVQ-RR의 체면 문항을 살펴보면 '자신을 수치스럽지 않게 하는 것', '대외적 이미지를 지키는 것', '모욕당하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 자아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민감한 집단주의 특성과 관련되어 보인다. 특히, 한국 대학생의 '체면' 가치 우선 순위(4순위)는 캐나다 대학생(12위)과 Schwartz 등(2012)의 10개국 대상 연구(13순위)의 순위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공적 자아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이 강한 특성(유민봉, 심형인, 2013)을 보여주는 것 일 수 있다.

Schwartz 등(2012)의 가치 이론에서는 겸손(humility)을 세상의 큰 도식 속에서 자신의 미미함(insignificance)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chwartz, 2017). 또한 PVQ-RR의 겸손 문항에는 '겸손한(humble) 것',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he/she deserves more than other people) 생각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본 연구의 PVQ-RR에서 겸손 척도의 내적합치도가 가장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한국 대학생 .53, 캐나다 대학생 .52), 동서양의 겸손에 대한 정의 차이로 인해 '겸손'을 일관되게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다차원 척도분석에서도 한국 대학생보다 캐나다 대학생의 '겸손' 가치가 '보편주의' 가치 군집과 더욱 가까이 위치한 점을 볼 때, Schwartz 등(2012)의 가치 이론에서 '겸손' 가치를 동양 문화에서 강조되는 남을 존중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개념보다는 보편주의의 큰 틀 속에서 자신의 미미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 대학생이 서양 문화권의 캐나다 대학생보다도 '겸손' 가치 추구 경향성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은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이 19개의 가치 중 가장 덜 중요시하는 가치였다. 특히, 한국 대학생은 서구문화권의 캐나다 대학생보다도 가정이나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전통' 가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가치관 조사(wave 7)에서 한국과 캐나다 사람들이 모두 전통적 가치에 비해 세속합리성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했던 점, 특히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에 비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했던 결과(Haerpfer et al., 2022)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Schwartz 등(2012)의 개선된 기본 개별 가치 이론을 활용해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양상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를 한국 대학생이 직면한 현실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해석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에서 발견된 가치 우선순위 차이를 종합해보면, 한국 대학생의 현실적이며 생존적인 가치로의 몰두는 물질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높은 고용 불안정성 및 청년 실업과 관련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치가

개인이나 집단의 태도나 행동을 이끌고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대학에서 가치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가 어떻게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기중심적인 가치에 몰두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타적인 동기를 덜 중시했던 한국 대학생의 결과를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고찰에는 경쟁적인 사회에서 자칫 경시되기 쉬운, 예로부터 강조되었던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감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중시되는 외집단을 향한 관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캐나다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초월적 가치 추구 경향성이 높고 자기고양적 가치 추구 경향성이 낮았던 본 연구의 결과는 캐나다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 캐나다는 국가의 설립과정에서부터 영국계, 프랑스계 캐나다인들 간 다문화적 갈등을 시작으로 한 오랜 상호문화 공존의 역사를 지닌다. 또한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부족한 인구지리적 특성도 상호문화나 외집단에 더욱 존중적인 풍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조했을 수 있다(박영자, 2012). 이러한 캐나다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은 캐나다 대학생이 타인에 대한 복지와 헌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 외집단에게 관용적인 것, 새로움과 변화에 대한 동기 추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가치 속성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동기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가치 추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가 지닌 함의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캐나다 대학생을 비교준거로 삼고 집단 간 가치 우선순위 차이를 살펴본 점은 강조할 만하다. 더욱이 가치

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속성임을 고려해본다면, 본 연구가 한국인의 가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한 가장 최근의 연구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보편적인 가치 이론인 Schwartz 등(2012)의 개선된 기본 개별 가치 이론을 활용하여 집단 간 전반적인 가치 체계의 선호도 차이를 직접 비교 분석한 것도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니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가치 우선순위 집단 차이검증 결과는 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했을 때도 동일했으나,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가치 우선순위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 점(예, 최정원, 이영호, 2014)과 물질주의 가치의 부정적인 영향이 여성에게 더욱 강력했던 메타분석 연구결과(Dittmar et al., 2014)를 고려해본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가치 우선순위의 성별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거주 지역이나 대학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즉, 한국의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권에 해당하는 수도권 거주자들이 주로 연구에 참여했으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소도시 거주자들도 대다수 연구에 참여하였다. 수도권 대학생을 표집한 연구에서는 ‘보편주의(자연, 관심, 관용)’ 가치의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지만(최정원, 이영호, 2014), 학교의 지역적 특성(대도시, 중소도시, 군 이하)을 고르게 편입표집한 연구에서는 ‘보편주의’ 가치 우선순위가 3~5순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박용한 등, 2012)을 고려할 때,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 간의 가치 차이가 일정 부분 이러한 지역적 차이로부터 기인되었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 비교 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치 우선순위 차이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Schwartz의 개

별 가치 이론은 한국 문화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예컨대, Schwartz 등(2012)의 가치 이론에서는 '자기주도 대 동조 가치'를 서로 대조적이고 양립될 수 없는 동기로 설명하지만, 한국 대학생은 행위적 자기주도 가치와 대인적 동조 가치를 모두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 점은 서구문화의 가치 이론을 한국 문화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의 한계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겸손' 가치의 낮은 내적합치도는 '겸손'에 대한 동서양의 문화 차이로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포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Likert 척도 같은 폐쇄적인 방식의 자기보고식 질문에 비해 개방적인 질문을 활용한 심층적인 측정 방식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문화적 속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을 고려해보면(Rhee et al., 1995), 본 연구의 설문 방식이 한국 대학생의 표면적인 가치 속성만을 보여줬을 가능성도 있다. 즉, 한국 대학생이 겉으로는 자율적 행동 같은 서구화된 가치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토대에는 전통적인 보수주의 가치가 깔려 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면담 방식을 통한 개방형 질문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식의 다양한 측정 방식을 활용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치의 문화 차이를 직접 비교한 가장 최신의 국내 연구이기는 하지만, COVID-19라는 국제적 위기를 겪은 후의 가치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저자소개

한 나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모양육, 가치와 태도의 관계, 문화적 다양성, 소수자 차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승연은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래괴롭힘, 학교폭력, 자살, 긍정 심리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구재선, 서은국 (2015).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63-83.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김희재, 김현숙 (2012).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태도. 동북아 문화연구, 33, 83-104.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 년, 1998 년, 및 2010 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3.
- 내일 대학 20대 연구소 (2016). 글로벌 7개국 대학생 가치관 비교. <https://www.20slab.org/Archives/12344>
- 노경란, 방희정 (2008). 한국대학생과 국내체류 외국대학생 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75-92.
- 박영자 (2012).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방향. 국제관계연구, 17(1), 299-333.
- 박용한, 김은예, 한수연 (2019). 대학생용 가치 척도 (K-PVQ-RR)의 타당화. 한국교육문제연구, 37(3), 127-154.
- 박지은 (2018). 대학 신입생 여성의 가치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변화양상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지영, 정영숙 (2012). 연령에 따른 가치구조의

-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21-44.
- 서지영, 정영숙 (2016a). 가치 추구, 자연과의 연결감 및 행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313-342.
- 서지영, 정영숙 (2016b). 아동, 청소년 및 대학생의 자기초월 가치와 친환경 행동과의 관계. 환경교육, 29(2), 135-152.
- 유민봉, 심형인 (2013).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합의이론을 통한 범주의 발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457-485.
- 정태연, 송관재 (2006). 한국인의 가치구조와 행동판단에서의 이중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3), 49-68.
- 최정원, 이영호 (2014).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 (PVQ-R) 한국판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553-593.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ardi, A., & Schwartz, S. H. (2003). Values and behavior: Strength and structure of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10), 1207-1220.
- Bond, R., & Smith, P. B. (1996). Culture and conformity: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Asch's (1952b, 1956) line judgment task. *Psychological Bulletin*, 119(1), 111.
- Cheon, B. K., Im, D. M., Harada, T., Kim, J. S., Mathur, V. A., Scimeca, J. M., et al. (2011). Cultural influences on neural basis of intergroup empathy. *Neuroimage*, 57, 642-650.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
- Güngör, D., Karasawa, M., Boiger, M., Dinger, D., & Mesquita, B. (2014). Fitting in or sticking together: The prevalence and adaptivity of conformity, relatedness, and autonomy in Japan and Turke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9), 1374-1389.
- Haerpfer, C., Inglehart, R., Moreno, A., Welzel, C., Kizilova, K., Diez-Medrano, J., Lagos, M., Norris, P., Ponarin, E. & Puranen B. (2022).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2) Cross-National Data-Set*. Version: 4.0.0.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DOI: doi.org/10.14281/18241.18
-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ttps://worldhappiness.report/ed/2019/>
- Hirsh, J. B., DeYoung, C. G., Xu, X., & Peterson, J. B. (2010). Compassionate liberals and polite conservatives: Associations of agreeableness with political ideology and moral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5), 655-664.
- Hofstede, G., Hofstede, G. J. & Minkov, M. (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3rd ed.)*. New York: McGraw-Hill.
- Inglehart, R., Haerpfer, C., Moreno, A., Welzel, C., Kizilova, K., Diez-Medrano, J., ... & Puranen, B. (2018). *World Values Survey Wave 6 (2010-2014)*.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 Jost, J. T., Fitzsimons, G., & Kay, A. C. (2004). The ideological animal. *Handbook of Experimental Psychology*, 263-83.
- Kağitçibaşı, Ç. (2007). *Family, self, and human development across cultures: Theories and applications (2nd ed.)*. Mahwah, NJ,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scolo, M. F., & Fischer, K. W. (2010). The dynamic development of thinking, feeling, and acting over the life span. In W. F. Overton & R. M. Lerner (Eds.), *The handbook of life-span development Vol. 1* (pp.149-194),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Milfont, T. L., Duckitt, J., & Wagner, C. (2010). A cross-cultural test of the value-attitude-behavior hierarch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0*(11), 2791-2813.
- OECD (2020a), *Suicide rates (indicator)*. doi: 10.1787/a82f3459-en (Accessed on 22 March 2020)
- OECD (2020b). *How's life in 2020?: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http://www.oecd.org/statistics/how-s-life-23089679.htm>
- Rhee, E., Uleman, J. S., Lee, H. K., & Roman, R. J. (1995). Spontaneous self-descriptions and ethnic identities i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1), 142.
- Sheldon, K. M. (2005). Positive value change during college: Normative trends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2), 209-223.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4), 19-45.
- Schwartz, S. H. (2010). Basic values: How they motivate and inhibit prosocial behavior. In M. E. Mikulincer, & P. R. Shaver, (Eds.), *Prosocial motives, emotions, and behavior: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pp.221-24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wartz, S. H. (2017). The refined theory of basic values. In S. Roccas, & L. Sagiv, (Eds.), *Values and behavior: Taking a cross-cultural perspective* (pp.51-72). Cham,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Schwartz, S. H. (2021). A Repository of Schwartz Value Scales with Instructions and an Introduction.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2*(2) 3-11.
<https://doi.org/10.9707/2307-0919.1173>
- Schwartz, S. H., & Cieciuch, J. (2022). Measuring the refined theory of individual values in 49 cultural groups: Psychometrics of the revised Portrait Value Questionnaire. *Assessment, 29*(5), 1005-1019.
- Schwartz, S. H., Cieciuch, J., Vecchione, M., Davidov, E., Fischer, R., Beierlein, C., ... & Dirilen-Gumus, O. (2012). Refining the theory of basic individu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4), 663.
- Sheldon, K. M. (2005). Positive value change during college: Normative trends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2), 209-223.
- Sinnott, J. D. (1994). *Interdisciplinary handbook of adult lifespan learning*. Greenwood Press/Greenwood Publishing Group.
- Sortheix, F. M., & Lönnqvist, J. E. (2014). Personal value priorities and life satisfaction in Europe: The moderating role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2), 282-299.
- Wetherell, G. A., Brandt, M. J., & Reyna, C. (2013). Discrimination across the ideological divide: The role of value violations and abstract values in discrimination by liberals and conservativ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4*(6), 658-667.
- World Bank. (2023, February). World Bank national

한 나이승연 /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가치 우선순위 비교 연구

accounts data, and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
Cd?most_recent_value_desc=true/](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most_recent_value_desc=true/)

1 차원고접수 : 2023. 04. 22.

수정원고접수 : 2023. 07. 14.

최종게재결정 : 2023. 07. 14.

A Comparative Study of Value Priorities between South Korean and Canadian University Students

Na Han

Student Counseling Center,
Ewha Womans University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value priorities between South Korean and Canadian university students. 385 South Korean and 349 Canadian undergraduate students (age 18~25)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Multidimensional scaling was analyzed in order to confirm that their values are divided by the circular motivational continuum equal to the Schwartz et al. (2012)'s theory of values. The unpaired two-sample t-test was analyzed after comparing differences of value priorities between groups. The values of the Korean and Canadian undergraduate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the circular motivational continuum by three principles such as the Schwartz's theory. While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were more immersed in self-enhancement values, they lacked a tendency to pursue altruistic motivations. In addition, the opposit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ulture were coexisted in openness to change and conservation values of the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In other words, the Korean students had a stronger tendency to pursue individualistic and independent autonomous behavior than the Canadian students, the Korean students also had a stronger tendency to pursue interdependent and interpersonal conformity value. Moreover, the Korean students considered stimulation value for novelty and change less important than the Canadian students, whereas the Korean students regarded hedonism value pursuing pleasure and sensory satisfaction as more important.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role of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that could influence the formation of value priorities for the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value, self-transcendence, self-enhancement, openness to change, conservation